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SEOUL METROPOLITAN CENTER FOR DEMENTIA

치매환자와 
즐겁게 사는  행복



치매환자와 즐겁게 사는 법

1. 식사·목욕·옷 입히기 문제 대하기

- 밥을 계속 달라고 조르는 문제 3
- 식사를 거부하는 문제 4
- 밥만 먹고 반찬을 잘 먹지 않는 문제 5
- 식사를 하다가 잘 삼키지 못하는 문제 6
- 혼자서만 목욕을 하려는 문제 7
- 목욕을 하지 않으려는 문제 8
- 목욕하는 중에 폭력을 휘두르는 문제 9
- 옷을 입고 벗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 10
- 옷 갈아입기를 거부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문제 11

2. 대소변 문제 대하기

- 계속 반복하여 화장실에 가는 문제 13
- 화장실이 아닌 딴 곳에서 대소변 보는 문제 14
- 대소변을 싸거나 지리는(실금) 문제 15
- 대변을 손으로 만지는 문제 16
- 대변을 먹는 문제 17
- 변기물에 손 씻는 문제 18
- 간이 소변기의 소변을 마시는 문제 19
- 기저귀 교환을 싫어하는 문제 20
- 기저귀 갈 때 폭력을 휘두르는 문제 21

3. 의사소통 문제 대하기

- 계속 반복하여 같은 질문을 하는 문제 23
- 불려도 대답을 하지 않는 문제 24
- 옆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집이니 나가라고 소리치는 문제 25
- 쉬운 말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문제 26
- 자신의 의사를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 27
- 한밤중에 큰소리로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문제 28
-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문제 29
-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 30
- 함께 사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문제 31

4. 의심·망각·초조행동 대하기

- 집안에서 자신의 방을 찾지 못하는 문제 33
- 자신의 물건과 가족의 물건을 구별 못하는 문제 34
- 거울을 보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문제 35
- 수도를 틀어 놓고 있는 문제 36
- 가스레인을 사용하고 나서 끄지 않는 문제 37
- 남의 물건을 훔치는 문제 38
- 물건이나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문제 39
- 약을 독이라고 하며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하는 문제 40
- 독이 들어 있다고 하며 식사를 거부하는 문제 41
-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문제 42



‘치매환자와 즐겁게 사는 법’을 펴내며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치매 문제는 치매를 앓고 있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주로 기억력 저하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진행함에 따라 점차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 지장이 생기고, 현실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 뿐 아니라 식사, 목욕, 옷입기, 대소변 가리기 등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혼자 해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치매 치료 약물이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수많은 환자 가족들이 점점 더 의존적이 되어가는 환자의 일상생활을 책임지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와 즐겁게 사는 법’은 모두 4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제는 「식사·목욕·옷입기 문제 대하기」, 「대소변 문제 대하기」, 「의사소통 문제 대하기」, 「의심·망각·초조행동 대하기」로 치매환자를 돌보면서 어려웠던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를 대처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 케어와 관련하여 많은 책자들이 출간되어 있지만 너무 이론적이고 딱딱해 가족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치매환자와 즐겁게 사는 법’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가족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구성되었습니다. 쉽게 읽히면서도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매환자와 즐겁게 사는 법’의 목표입니다.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문제들과 매일매일 씨름하고 있는 많은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치매환자와 즐겁게 사는 법’이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이 책을 무상으로 발간하도록 협조를 해 주신 한국치매협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치매환자와

즐겁게 사는 법 |

▶ 식사 · 목욕 · 옷 입히기 문제 대처기 ◀

밥을 계속 달라고 조르는 문제

식사를 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또 밥을 달라고 조르고 지나치게 많이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세요 😊
"조금 후에 간식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치매니가 먹은 것도 모르지요."
"방금 먹었잖아요!"
"자꾸 조르시면 안돼요."

조호포인트

- 환자의 말이 사실과 달라도 무시하거나 야단치면 안됩니다.
- 과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자의 요구에 응하며 재치있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체 식사량이 많아지는 것은 피해야 하므로 소량씩 여러 번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가 진행되면 포만감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어 식사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기억력 장애로 인해 식사한 것을 잊어버려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환자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적절히 응해 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식사를 거부하는 문제

식사를 할 것을 권유하면 화를 내면서 식사를 거부한다.



이렇게 하세요 😊

시간 간격을 두고 "식사하세요."
라고 다시 권한다.
다른 사람이 권해 보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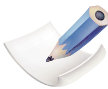
"안 먹으면 안돼요!"
"마음대로 하세요!"라며 식사를
치워 버린다.
"어차피 배고파질 텐데요!"

조호포인트



- 야단을 치고 음식을 치워 버리거나 강제로 먹이려고해서는 안됩니다.
-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시간을 두고 다시 권유해 보거나 환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권해 보도록 합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환자는 고집스럽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기분이나 상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므로 식사를 거부할 때는 나중에 다시 권하거나 다른 사람이 권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사 거부가 계속되어 영양에 문제가 생길 정도라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각종 신체질환이나 우울증 때문에 식욕을 잃을 수가 있고 구강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밥만 먹고 반찬을 잘 먹지 않는 문제

식사를 스스로 하기는 하지만 밥이나 국만 먹고 반찬을 골고루 먹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하세요 😊

"이거 참 맛있게 생겼네요."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라며
부드럽게 권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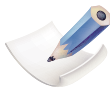
"뭐하세요. 반찬도 먹어야죠."라며
야단친다.
밥과 반찬을 섞어서 강제로 먹인다.

조호포인트



- 야단치거나 화를 내며 강제로 먹이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또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밥과 반찬을 함부로 마구 섞어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 음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말을 걸면서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권합니다.
- 환자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고 먹기 편하게 음식을 준비한다.

알아 두세요



영양은 건강유지에 필수적이므로 균형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밥만 먹고 반찬을 잘 먹지 않는 등 편식하는 문제는 치매환자에게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평소 식습관을 잘 파악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먹기 편하게 조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환자의 신체 상태와 구강 내의 문제가 원인인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식사를 하다가 잘 삼키지 못하는 문제

음식을 먹다가 잘 삼키지 못하여 뱉어 내거나 사례가 걸리는 경우가 잦아졌다.



이렇게 하세요 😊

"천천히 드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등의 구체
적인 말로 따뜻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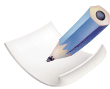
"뭉하세요. 빨리 삼켜요."
"더럽게 뱉어내면 어떡해요."라
며 야단친다.

조호포인트



-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며 강제로 삼키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소량씩 먹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음식을 조리할 때 환자가 먹기 쉬운 조리 형태의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가 진행되면 음식을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 삼키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된다면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해야 합니다. 특히 사례가 자주 걸리는 경우에는 음식물이 기도으로 들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조리할 때에도 잘 삼킬 수 있도록 연하게 하거나 잘게 썰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만 목욕을 하려는 문제

혼자서는 목욕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도움을 받으려하지 않고 혼자서만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하세요 😊

"등에 물을 끼얹어 드릴까요?"
"목욕물이 따뜻한지 봐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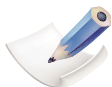
"혼자 들어가면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우웬하니까 안돼요."

조호포인트



- 옷을 벗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물을 환자가 좋아하는 온도로 맞추고 부드러운 태도로 씻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환자의 기분이 좋을 때 목욕을 하도록 권하고, 목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문제에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가 진행이 되면, 식사하기, 옷 입기, 목욕하기 등과 같이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환자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시도하도록 하고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욕을 하지 않으려는 문제

몸이 더러워 목욕을 시키려 해도 매번 거부하고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하세요 😊

"그럼 조금 있다가 할까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머리를 감으면 가벼운데요."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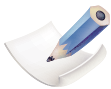
"무슨 말씀이세요. 목욕 안하면 냄새 나요."
"더러우니까 목욕 안하면 안돼요."
라며 억지로 옷을 벗긴다.

조호포인트



- 야단을 치거나 강제로 목욕을 시키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 우선 부드러운 태도로 목욕을 권하고 격려해 주고 스스로 목욕할 기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 목욕할 때는 위험하지 않도록 천천히 해야 하지만 너무 오래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가 진행되면 위생관리의 필요성을 모르게 되어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어집니다. 또 깨끗한 것과 지저분한 것의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옷을 벗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심하게 느끼거나 탕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어 목욕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몸에 이상은 없는지 목욕시 전신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욕하는 중에 폭력을 휘두르는 문제

목욕하는 중에 몸을 씻기고 있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때리고 밀치는 행동을 보인다.



이렇게 하세요 😊

"죄송해요. 아픈데요?"
"어디 가려운 데는 없으세요?"
라고 말을 걸면서 씻어준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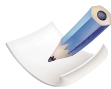
"뭐하세요. 안되요!"라며 억누른다.
"가만히 계세요! 씻고 있습니다!"

조호포인트



- 야단치거나 화를 내면서 강제로 하려고해서는 안됩니다.
- 몸을 씻어줄 때는 무엇보다도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걸지 않고 몸에 손을 대면 불안해합니다.
- 물의 온도나 씻는 방법을 환자의 습관에 맞게 적절히 맞추고 신체적으로 불편한 곳이 없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환자는 도움을 주려는 조호인의 행동을 오해하여 충동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환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먼저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해도 대응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분을 잘 살펴서 대처해야 하고 환자에게 맞는 방법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신체적으로 불편한 곳이 없는지 전신의 상태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옷을 입고 벗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

옷을 입거나 벗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속옷과 겹옷을 바꿔 입거나 뒤집어 입고 다닌다.



이렇게 하세요 😊

잘못된 것을 볼 때마다 스스로 고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보기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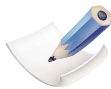
"오래 항상 옷을 이렇게 입어요."라며 야단치며 혼자서에게 고쳐 입으라고 지시한다.

조호포인트



- 야단치거나 무리하게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 옷을 고쳐 입으라고 지시하게 되면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 동작을 하나하나 떠올릴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말을 걸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가 진행되면 자신이 옷을 잘못 입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리하게 강요해서 몰아붙이면 오히려 반감을 갖게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고쳐 입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호자가 직접 고쳐 입혀 주도록 합니다.

옷 갈아입기를 거부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문제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려 하고 하면 화를 내면서 거부하고 폭력을 휘두른다.



이렇게 하세요 😊

시간을 두고 한번 더 이야기해 본다.
"이 옷이 좀 더 잘 어울리는데 어때
세요?"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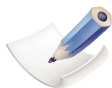
야단치면서 강제로 갈아입힌다.
"더러우니까 갈아입는 거예요. 남
새나잖아요!"

조호포인트



- 야단치거나 화를 내고 강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 강제로 하려고 하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더욱 저항합니다.
- 옷을 갈아입히기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강하게 거부하면 무리하게 갈아입히려 하고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알아 두세요



옷은 사회문화적인 의미 이외에도 체온조절, 피부의 청결유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옷을 갈아입는 목적을 잘 모르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명을 하고 나서 시도해야 하며 환자의 기분을 배려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옷을 선택할 때에도 환자의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착의의 용이성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치매환자와

즐겁게 사는 법 2

▶ 대소변 문제 대처하기 ◀

계속 반복하여 화장실에 가는 문제

방금 소변을 보고서도 계속 다시 화장실에 가겠다고 한다.
혼자 화장실을 찾지 못하며 매번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하세요 😊

"예, 화장실로 가시죠."
"방금 갔다 왔지만 또 가 보도록 하죠." 몇 번이라도 웃으면서 응해준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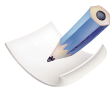
"방금 갔다 왔잖아요. 보세요, 역시 안 나오잖아요!"
"또 가요?"라며 화를 낸다.
"설거지 마칠 때까지 기다려요!"

조호포인트



- 매번 요구에 응해 주도록 합니다.
- 치매환자라고 해도 강점과 자존심이 있으므로 화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 문제가 지속되면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합니다.

알아 두세요



노인이 되면 요도 괄약근의 조임이 약해져 소변이 급하게 되고 실금이 쉽게 생깁니다. 더욱이 치매 노인은 건강한 노인에 비해 운동량과 활동량이 적어 요로 감염이 더 쉽게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소변이 급해지고 잔뇨감 때문에 소변을 보고도 또 다시 마렵게 됩니다.

화장실이 아닌 딴 곳에서 대소변 보는 문제

화장실이 아닌 현관, 방, 커튼, 베란다, 화장실 바닥 등 아무 곳에서나 대소변을 함부로 본다.



이렇게 하세요 😊

화를 내거나 야단이나 소리치지 말고 곧 바로 대소변을 치운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뭐예요! 그런 곳에 똥오줌을 누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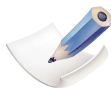
"거기는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조호포인트



- 화를 내거나 야단이나 소리치지 않도록 합니다. 왜 야단맞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소용없습니다.
- 주의깊게 관찰해서 배변의 김새를 보이면 미리 화장실로 모시고 갑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관찰하면 배변 김새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환자는 화장실에서 배설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거나 지남력의 장애로 화장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환자가 대소변 보기 전에 보이는 배변 조짐을 잘 파악하여 미리 화장실로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대소변 보는 패턴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적절한 때에 효과적으로 화장실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대소변을 싸거나 지리는(실금) 문제

속옷에 대소변을 지리거나 싸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찢찢맨다.



이렇게 하세요 😊

야단치거나 짜증이나 화를 내지 않는다.
"속옷이 젖어서 불편하죠. 옷을 갈아입으시죠."라며 부드럽게 말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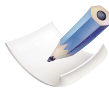
"아이구, 힘들어."라고 말하며 한숨을 쉰다.
"요즘 자주 이러네."
"왜 그러세요. 그만 좀 하세요."

조호포인트



- 야단치거나 짜증이나 화를 내지 않아야 하며 거칠고 난폭하게 옷을 갈아입혀서는 안된다.
- 실금하기 전에 배설을 유도하거나 일정한 간격으로 배설을 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알아 두세요



대소변 나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므로 야단을 쳐도 효과가 없습니다. 또 자각은 하지만 화장실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의 배설 패턴을 잘 파악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배설을 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급성 요실금 증상은 요로감염으로 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비뇨기와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변을 손으로 만지는 문제

화장실이 아닌 곳에 대변을 보고 대변을 손으로 만지거나 옷, 방바닥, 벽 등에 묻힌다.



이렇게 하세요 😊

호를 내거나 야단이나 소리치지 않는다.
"제가 치우쳐 드릴게요." "제가 해 드릴게요."
"저리로 가세요."라고 간단히 부드럽게 말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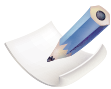
"뭐하시는 거예요. 더럽잖아요."
"오해대변을 본다고 얘기 안하나요?"

조호포인트



- 더럽다고 야단치지 말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뒤처리를 하여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배려해 줍니다.
- 대변을 만지다가 들켜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마음을 알아주면 안심합니다.
- 배변 전에는 대개 어떤 김새를 보입니다. 안절부절 못하거나 방의 구석으로 가는 경우에는 곧바로 화장실로 모시고 갑시다.

알아 두세요



스스로 처리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손으로 대변을 만지는 일이 생깁니다. 환자의 어려움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해해 주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면 환자의 배변 패턴을 파악해 미리 화장실로 모시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저귀의 착용을 서두르지 말고 가능한 한 화장실에서 배설하게 합니다. 간혹 향문을 손으로 만져 대변을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비 때문에 뒤가 불편해서 하는 행동일 수 있으므로 반복되면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변을 먹는 문제

한동안 계속해서 먹을 것을 찾더니 급기야는 대변을 집어 먹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하세요 😊

조용히 대변을 치우고, "더 맛있는 것을 드릴게요."라고 과자 등 먹을 것을 드린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아이구! 더러워라."

"말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만 두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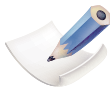
"그건 똥이에요! 더러워서 죽겠어."

조호포인트



- 더럽다고 야단치면 환자의 혼란과 수치심만 가중시키게 됩니다.
- 말로 "대변은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지 말고 과자 등 다른 먹을 것을 드려 관심을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가 진행하게 되면 식욕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사물을 식별하는 능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변을 먹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야단을 치거나 말로 설명하기 보다는 관심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변기물에 손 씻는 문제

화장실 변기 물에 세수를 하고 손을 씻거나 양치질을 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렇게 하세요 😊

화를 내거나 야단이나 소리치지 않는다. "여기는 변기니까 이곳에서 씻으세요."라고 하며 세면기로 안내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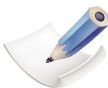
"더러워 죽겠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똥 누는 변기예요."

조호포인트



- 화를 내거나 야단치는 것은 환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조심하면서 변기라는 사실을 간단히 알려주고 세면기로 안내합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환자는 기억력 장애뿐만 아니라 판단력의 장애 등도 함께 겪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는 변기와 세면기를 구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야단치기 보다는 따뜻한 태도로 세면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이 소변기의 소변을 마시는 문제

목이 마르면 방안에 놓아둔 간이 소변기의 소변을 마신다.



이렇게 하세요 😊

"목 마르세요? 물 가져올까요?
이 물이 더 맛있어요." 야단치지
말고 밝은 목소리로 말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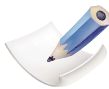
"더럽잖아요. 그만 두세요."
"소변을 마시면 어떡하세요?"

조호포인트



- 간이 소변기는 소변을 보는 즉시 비워두도록 합니다.
- 환자 가까운 곳에 마실 물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환자는 판단력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야단치지 말고 환자와 가까운 곳에 물과 컵을 미리 준비해 줍니다.

기저귀 교환을 싫어하는 문제

빈번한 대소변 실금으로 기저귀를 차고 있으나 기저귀를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세요 😊

"엉덩이에 뭐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께 좀 보여 주시겠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천천히 말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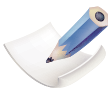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야. 빨리 갈아입어줬네." 큰 소리로 짜증스럽게 말한다.

조호포인트



- 야단치며 강제로 기저귀를 갈아입히려 하면 환자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져서 더 강하게 저항하고 거부합니다.
- 천천히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하면서 기저귀를 재빨리 갈아입히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가 진행되면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잊게 됩니다. 또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저하되어 기저귀 가는 것을 자신을 해치는 행동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환자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최대한 따뜻하고 부드럽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저귀 갈 때 폭력을 휘두르는 문제

더러워진 기저귀를 교환하려고 하면 매우 싫어하고 거부하며 때로는 욕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하세요 😊

"기저귀가 젖어서 가셔야겠는데요."라고 먼저 설명한다. 환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무리하게 갈지 말고 환자가 차분해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 다음 교환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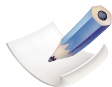
"또 때린 다니가요!"
"좀 양전하게 계세요!" 야단치고 무리하게 갈아입힌다.

조호포인트



- 다른 사람이 자신의 하반신에 손을 대는 것을 수치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 기저귀를 갈아입힐 때는 반드시 먼저 말로 설명한 다음 본인의 의사를 듣고 하도록 합니다.
-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에는 강제로 하지 말고 여유를 두고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가 진행되면 위생관리의 필요성을 모르게 되기 때문에 환자의 기분을 배려하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는 도움을 주려는 조호인 행동을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오인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환자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차분히 설명한 후 천천히 시도해야 합니다.

치매환자와

즐겁게 사는 법 3

▶ 의사소통 문제 대처하기 ◀

계속 반복하여 같은 질문을 하는 문제

질문에 대답하여 주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이렇게 하세요 😊

몇 번이라도 느긋하게 대답한다.
몇 번이라도 웃으면서 대답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이거 알려줬는데, 몇 번 얘기하셔야
알겠어요?"
"번서 잊어버렸어요?"라며 화를 낸다.

조호포인트



- 치매환자는 얘기해 준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같은 것을 반복해서 물어보더라도 끈기있게 잘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 화를 내게 되면 환자는 자신감을 잃게 되어 치매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 두세요



기억력의 감퇴는 치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환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저하되어 점차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나 다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기억하고 싶은 것도 금방 잊어버려서 몹시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증가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문제

환자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화를 낸다.



이렇게 하세요 😊

환자의 이름 또는 어린 시절의 애칭을 조용히 부른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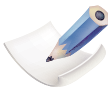
큰 소리로 다시 부른다.
"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며 화를 낸다.

조호포인트



-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큰 소리로 다시 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환자는 자신을 부르는 것을 모르거나 자신과는 관계없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시끄럽다고 느낄 따름입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환자는 병의 초기에는 최근 기억의 감퇴가 주로 나타나지만 점차 오래된 과거 기억들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병이 더욱 진행되면 자신의 직업, 출신학교, 생일, 가족, 나중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편 자신에 대한 호칭(할머니, 할아버지 등)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을 이해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부르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옆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집이니 나가라고 소리치는 문제

이웃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집이니 나가라고 소리치고 나오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세요 😊

옆집 사람에게 미리 사정을 이야기 하고 영향을 구한다.
환자의 가족을 불러 온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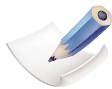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이상한 짓 좀 하지 마세요."

조호포인트



- 야단치거나 화를 내면 환자는 매우 당황해하고 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 친절히 대해주고, 가족과 만나게 해주면 환자는 안심합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 노인을 모시는 가정은 평상시에 이웃 사람들과 가능한 한 친하게 지내도록 하고 이웃들에게 치매노인에 대해 미리 이해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일어나는 일이므로 환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쉬운 말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문제

쉬운 이야기를 하여도 잘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하세요 😊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반복해서 잘 이야기 한다. (충분하게 설명하면 상대가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짓이나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왜 이야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라며 설명을 생각한다.

조호포인트



- 끈기와 인내와 애정을 가지고 천천히 반복해서 이야기 합니다.
- 좀 더 쉬운 말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제스처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환자는 증상이 진행되면서 언어장애가 동반되게 됩니다. 물건의 이름을 대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대화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쉬운 말로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안 하고 혼자 두면 언어장애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방법으로써 손짓이나 몸짓을 활용하면 환자의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세요 😊

초대환한 짚고 간단하게 이야기 한다. 환자의 말에 적극적으로 응대 해준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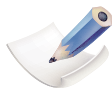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호포인트



- 환자의 말이 틀리더라도 무시하거나 야단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도 고개를 끄덕여주거나 맞장구쳐주거나 하면서 들어주어야 합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환자는 언어장애로 인해 말이 모호하고, 부정확하거나 우회적일 수 있으며, 자신의 의사를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가 더 진행 되면 환자는 말이 없어지고 묻는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밤중에 큰소리로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문제

한 밤중에 가족들을 깨워 큰 소리로 불필요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이렇게 하세요 😊

"이 방은 어두워요. 밝은 곳에서 이야기 하지요."라며 장소를 옮긴다.
"이야기를 해서 피곤하시죠?"라며 차를 드린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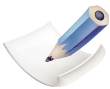
"지금은 한밤 중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내일 얘기 하세요."

조호포인트



- 옆에 사람이 있으면 안심합니다.
- 이야기가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환자는 초조증상이 동반되는 때가 많습니다. 초조는 의식의 혼돈이 없이 나타나는 부적절한 언어, 음성, 운동을 말합니다. 초조증상은 낮에도 보이지만, 밤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이나 신체적 불편감 등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심시켜주고 불편함이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문제

기분이 우울한 상태로 지속되고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하세요 😊

"많이 힘드시군요."라고 말하며, 환자의 이야기를 관심있게 들어준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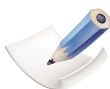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또 이러네..."라고 생각하며 상대해 주지 않는다.

조호포인트



- 말을 하지 못하게 야단치거나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 환자의 호소를 관심 있게 들어주고, 기분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자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알아 두세요



우울증상은 치매환자의 약 40~50%에서 나타나는 주요증상으로 치매 초기에도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 의욕저하, 흥미상실, 반복적인 자살사고 등을 보이면 우울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우울증은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으므로 의심될 경우 전문의와 빨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자신을 욕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심하게 화를 낸다.



이렇게 하세요 😊

"이것 좀 드실래요?" 라고 간식을 권하면서 말을 시킨다.

"죄송해요. 시끄러우셨죠? 좀 작은 소리로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할머니 목소리가 더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건 할머니예요."

조호포인트



- 의심이 심해져 누군가가 자신의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야단치게 되면 점점 더 의심이 심해지고 흥분하게 됩니다.
- 부드러운 방법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해주세요.

알아 두세요



치매환자는 정신행동증상으로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정신병적인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서 보이는 관계망상은 아무 근거도 없이 주위의 모든 것이 자기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자기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증상이 심해지면 불안, 초조증상이 나타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반응되심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신경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문제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을 보고도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세요 😊

절대 부정하지 말고 노인의 말에 맞추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어? 아들 이잖아요. 잊어버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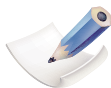
"틀렸어요! 아들 이라고요!"

조호포인트



- 야단치거나 바르게 가르쳐 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환자는 매우 혼란해지고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환자의 말을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면서 응대해주는 것이 환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입니다. 몇 번이라도 느긋하게 반응해 주도록 합니다.

알아 두세요



지남력은 시간, 장소, 사람을 알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남력을 유지하는 데는 기억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매가 진행됨에 따라 지남력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초기에는 시간에 대한 지남력이 상실되고 점차 장소와 사람에 대한 지남력도 상실되게 됩니다. 치매가 심해지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와

즐거게 사는 법 4

▶ 의심 · 망각 · 초조행동 대하기 ◀

집안에서 자신의 방을 찾지 못하는 문제

집안에서 자신의 방을 찾지 못하고, 다른 방에 들어가서도 자신의 방이라고 하며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세요 😊

"뭐하세요. 뭘 찾고 계세요? 같이 찾아드릴까요?"

"간식 드릴까요?" 하면서 방에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여긴 할아버지 방이 아니잖아요. 손자 방도 잊어버리고, 정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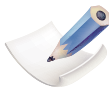
"남의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조호포인트



- 치매환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두 이해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매우 당황하거나 흥분할 수 있습니다.
-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환자와 함께 행동해 주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안심하게 됩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환자들은 공간적인 지남력이 상실되고, 공간적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치매환자들은 예전에 익숙하게 찾아가던 장소를 찾는 것이 점차 어려워집니다. 초기에는 먼 거리나 동네 주위의 장소를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점차 심해지면 집안에서 자신의 방이나 화장실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물건과 가족의 물건을 구별 못하는 문제

가족들의 물건을 가져와서 모아두고 자신의 물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세요 😊

환자 본인의 물건을 갖고 와서 보여준다. 강제로 뺏지 말고 환자가 갖고 있도록 한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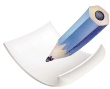
"이건 할머니 것이 아니잖아요."
"왜 다른 사람 물건을 가져가요."
라며 강제로 빼앗는다.

조호포인트



- 환자는 자신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강제로 뺏지 않도록 합니다.
- 환자의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일단은 갖고 있도록 합니다.
-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 뒤에 돌려받으면 됩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환자는 전형적으로 기억력의 감퇴를 보이며,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장애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치매가 진행되면 판단력의 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물건을 타인의 물건과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는 이러한 증상들에 의해서 유발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호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문제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쁜 여자가 우리 집에 있다고 말하거나 화를 낸다.



이렇게 하세요 😊

거울을 치우고 주변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조용하고 온화한 태도로 환자를 안심시킨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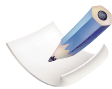
"거울 속에 있는 여자가 엄마잖아"라고 소리쳐서는 안된다.
조호자가 거울에 비치게 하면 안된다.

조호포인트



-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 하면 환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면서 환자의 위치를 바꾼 후 주위를 정리합니다.
- 복잡한 구조물이나 가구는 환자를 혼란하게 합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환자는 실제 존재하는 자극의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인합니다. 때로는 텔레비전의 내용을 현실과 착각하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는 장면, 슬픔에 우는 장면을 보면서 친구가 죽었다거나 슬픈 일을 당하여서 큰일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를 틀어 놓고 있는 문제

수돗물을 사용하고 나서도 잠그지 않고 내버려 둔다.



이렇게 하세요 😊

야단치지 않고 수돗물을 직접 잠근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요!"라며 야단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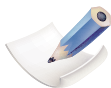
"물을 씻으면 잠가 놓으라고 했죠!"

조호포인트



- 야단치거나 화를 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치매환자는 자신이 수돗물을 틀었다는 사실을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환자를 혼자 둘 때에는 수도를 잠귀 두어야 합니다.

알아 두세요



기억력의 감퇴는 치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환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점차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나 다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방금 자신이 한 일도 잊게 되어 수돗물을 사용하고 나서 잠그는 것을 잊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나서 끄지 않는 문제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을 올려놓은 것을 잊어 음식을 태우기도 하고 가스를 잠그는 것도 잊는 때가 많다.



이렇게 하세요 😊

야단치지 말고 직접 가스를 잠근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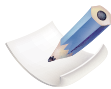
"분남이면 어저려고 그러세요!"
"남은 사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조호포인트



- 야단치거나 화를 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치매환자를 혼자 둘 때에는 미리 가스밸브를 잠가 둡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환자는 기억력의 장애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행동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에서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미리 잘 파악하고 예방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특히 치매가 진행된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를 혼자 있게 하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예방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문제

가게나 이웃집에 들어가 음식이나 물건을 훔치고서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세요 😊

주인의 양해를 구하고 환자가 잠깐 가지고 있도록 한다.
시간을 두고 주인에게 돌려준다.
본인의 물건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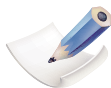
"어머님 물건이 아니니까 갖고 오면 안 돼요."
"이번에는 어디에서 훔쳤어요?"
라며 심하게 야단친다.

조호포인트



- 환자는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 절대 행동을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물건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할 뿐입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가 진행되면 남의 집과 자신의 집을, 남의 물건과 자신의 물건을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를 비난하거나 야단치지 말고 주위사람에게 환자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행동에는 일관성이 없는 때가 많으므로 시간이 약간 경과하면 관심이 없어져 문제가 되는 특정 행동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이나 돈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문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갔다고 계속 의심하고 걱정한다.



이렇게 하세요 😊

"그거 큰일 났네요. 함께 찾아보아요."라며 행동을 함께 한다.

"무엇을 잃어버렸어요?"라고 묻고 그 물건을 준비해서 찾은 것처럼 하여 건네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항상 없어졌다고 소리치는데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정말로 돈이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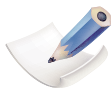
"어디에다가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조호포인트



- 환자가 자꾸 잊어버려서 아주 불안한 상태로 있습니다.
-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함께 행동을 해 주면 안심합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환자는 자신이 둔 물건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기억력의 장애가 심한 상태입니다. 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의심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뇌손상의 결과이며, 병의 초기에는 대부분 설명과 설득으로 쉽게 풀어질 수 있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망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을 독이라고 하며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하는 문제

환자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 약을 먹이려고 하는데
약을 독이라고 하며 복용하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하세요 😊

약을 가루로 만들어 꿀과 섞은 다음, 옆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면서 숟가락으로 먹인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오해, 약을 안 먹는 거예요?"라며 야단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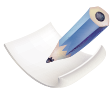
강제로 약을 먹인다.

조호포인트



- 약을 강제로 먹이거나 야단을 치게 되면 더욱 거부하게 됩니다.
- 충분히 잘 설명하여 약을 먹도록 권유하고, 설득이 안 되면 약을 다른 형태로 만들어 복용시키게 합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환자는 정신행동증상으로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정신병적인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신체의 급격한 쇠약으로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아무도 자신의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망상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안과 초조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해망상증을 가진 환자는 신경정신과적인 전문치료가 필요합니다.

독이 들어 있다고 하며 식사를 거부하는 문제

환자는 가족들의 음식에 독을 넣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식사를 하지 않으려 한다.



이렇게 하세요 😊

"그럼 제가 같이 먹을게요."라며 함께 식사를 한다.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한다. 본인이 좋아하는 곳으로 옮겨서 기분전환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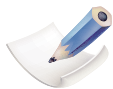
"그런거 넣지 않았어요.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요!"
"겨우 만들어 놔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안 줄 거예요."

조호포인트



- 함께 식사해 주면 안심합니다. 식사장소를 바꾸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조호하는 사람의 언행이 환자에게 전해져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불신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환자는 정신행동증상으로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정신병적인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피해망상이 동반되어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고, 불안과 초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식사거부는 심한 영양결핍상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망상에 대한 신경정신과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문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집안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반복한다.



이렇게 하세요 😊

"오해 그러세요?"라며 부드럽게 말을 건다.

"함께 걸을까요?"라며 권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세요 😞

"거기서 뭐하세요?"라며 야단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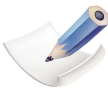
"빨리 방에 들어가세요."

조호포인트



- 야단치거나 행동을 제시하면 환자는 더 불안해지고 공격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 천천히 조용하게 접근하고 부드러운 말로 환자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 관심과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알아 두세요



치매환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목적 없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형태의 초조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초조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쉽게 흥분하고 공격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흥분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대처해야 합니다. 초조와 공격성을 보이는 환자를 돌볼 때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매 무료 조기검진 이용안내

- ◆ 대상자 : 서울시에 거주하는 해당구의 만 60세 이상 어르신
(저소득층 어르신 우선 검진)
- ◆ 치매검진 신청방법 : 거주 지역의 치매지원센터 직접 방문, 전화,
온라인(치매지원센터 홈페이지)
- ◆ 치매검진 장소 : 거주 지역의 치매지원센터
- ◆ 치매검진 내용 : 치매선별검진, 치매정밀검진
(치매원인확진검사 연계)
- ◆ 치매검진 비용 : 선별검진과 정밀검진은 무료, 원인확진검사
(뇌영상 검사 등)는 본인 부담이지만
저소득층 어르신은 검사비 지원
- ◆ 주요 서비스 내용 : 치매검진 결과에 따라 분류된 치매, 치매 고위험,
정상 대상자를 등록하여 가장 적합한 관리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관리 서비스 제공
 - ▶ 치매 등록관리 치매상태평가, 상태별 관리 서비스 제공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방문간호 서비스/ 조호물품 제공/
배회어르신 인식표, GPS 제공/ 치매관련 정보제공/ 가족모
임/ 지역 의료·복지기관 연계/ 저소득층 치매 치료비 지원
 - ▶ 치매 고위험 등록관리 상태별 관리 서비스 제공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정기 정밀검진 서비스/ 치매예방
정보제공/ 치매예방프로그램 연계
 - ▶ 정상 등록관리 상태별 관리 서비스 제공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정기 선별검진 서비스/ 치매예방
정보제공/ 치매예방프로그램 연계

치매지원센터 안내

자치구	주 소	전화번호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08길 27(삼성동 113-26)	02)568-4203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45(성내동 541-2)	02)489-1130
강북구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202(우이동 279-236)	02)991-9830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371 경향교회회관 3층(등촌동 658-4)	02)3663-0943
관악구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4	02)879-4910
광진구	서울시 광진구 고척로 110(광진구 중곡2동 125-11)	02)450-1381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97 4층(고척동76-160)	02)2612-7041
금천구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 7층(독산1동 289-5)	02)3281-9082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6,7동 701-1)	02)911-7778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0 4층(방학1동 720-33)	02)955-3591
동대문구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로 81 1층(청량리동 203-1)	02)957-3062
동작구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25(사당동 1049-11)	02)598-6088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 122(대흥동 32-29)	02)3272-1578
서대문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90(홍은2동 425-3)	02)379-0183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15(한우리정정보문화센터 지하 1층)	02)591-1833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길 54 2층(성수동 1가 685-54)	02)499-8071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63 5층(하월곡동 46-1)	02)918-2223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184 1층(장지동 850-2)	02)425-1694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가로공원로 146 3층(신월1동 94-1)	02)2698-8680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9길 9(당산동3가 408)	02)831-0855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34-87)	02)790-1541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34길 11(불광동 130-2)	02)388-8233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50(평창동 235-2)	02)3675-9001
중구	서울시 중구 다산로 36길 11 6,7층(신당6동 291-48)	02)2238-3400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608 2,3층(면목5동 161-34)	02)435-7540

“아름다운 노년, 서울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가족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쉽게 읽히면서도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 발 행 처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 발 행 인 | 이동영
- 주 소 |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1층
- 전 화 | 02)3431-7200
- 홈페이지 | www.seouldementia.or.kr
- E-mail | sd2020@naver.com

copyright © 2013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서울특별시치매센터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